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6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농협)에서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한 전북본부 임직원 및 도내 조합장 100여명에게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뒤 고흥시향 기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전북, 농생명산업 수도'

김관영 도지사, 전북농협 찾아 비전 설명회  
도내 농축협 조합장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6일 농협전북본부 방문에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수도 '전라북도' 비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해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부안농협 조합장), 관내 외계 농·축협 조합장과 13개 시군지부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지사로서 취임하기 전부터 전북도가 가장 잘해왔던 것,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 왔었다"며, "전북에 농업분야 국책 혁신연구기관들이 집중돼 있어 농생명과 바이오, 식품산업 등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경쟁력과 실행력에서 최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올해부터는 이같은 강점을 살려 종자, 미생물, 식품, 동물

용의약품 등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신항만, 신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일본·중국 중심에서 러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전라북도를 반드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해 가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일선 농협 조합장들께서도 농업의 혁신성과 농민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도정 정책에 적극 동참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헌신해 달라며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감사패와 박병철 노동조합 위원장이 운송화물을 선물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행사는 도시락 오찬으로 마무리됐으며 전북도의 농생명산업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전북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전북 관내 전체 조합장들이 농도의 중심 전북도가 농생명산업 수도 발돋움 할 수 있도록 13개 시군별 고흥시향 기부에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답례품이 전북 농축산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는 "고향시향기부 성공정책에 전북 농축협 조합장이 앞장설 것이며,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본부장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유지를 통한 천년의 비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북농협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가정의 달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사랑나눔 실천

국민연금공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온누리상품권 전달  
임실호국원 찾아 국립묘지 참배 · 묘역 가꾸기 봉사 나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 26일 임실호국원에서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난 26일 국립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국립묘지 참배 및 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국립묘지 참배 및 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국립묘지 참배 및 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단 본부, 직안지사 직원들은 현충탑 참배 후 묘역 환경 정화 태극기 꽂기 등 봉사활동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렸다. 한편 지난 8일 공단은 보건복지부 주관 어버이날 맞이 '효사랑 큰잔치' 행사에 참석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온누리상품권 200만원을 전달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후돌봄기관으로 전국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취약계층 어르신 후원과 국립묘지 가꾸기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지속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남원농협 등 남원공설시장서  
농촌인력증개 거리 홍보

남원농협과 남원시조합공공사업법인 남원시지부 농정지원단은 남원 장날인 지난 24일, 공설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농촌인력증개센터 사업에 대해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농촌인력증개센터 사업은 치솟는 인건비 상승과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 참여자는 중개료 없이 무료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와 임금·고용시간을 협의하



남원농협과 남원시조합공공사업법인, 남원시지부 농정지원단은 남원 장날인 지난 24일, 공설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농촌인력증개센터 사업에 대해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고 중개센터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의 당일 상해보험, 교통비 일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농협 농촌인력증개센터에(063-620-4556)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 침수 피해 따른 주민대피 '실전과 같이'

전북환경청, 수해대비 모의훈련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지난 26일 국가하천인 정읍천 일원에서 2023년 여름철 수해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북도 정읍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홍수취약지역(제방 여유공간이 부족 구간) 침수 방지 임시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홍수특보 전 인근 마을의 침수가 발생할

상황에서 재난 관리기관의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본 훈련은 전북환경청이 국가하천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여 대령모래주머니를 쌓아 하천의 범람을 막고, 전북도는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피방송을 실시하여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전북환경청과 전북도는 오는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하천 모니터링 CCTV 정보를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도 보고 대응

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또한 전북환경청은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안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홍수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대규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올여름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현대차 전북, 전주비전대에  
교육용 실습차량 기증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 자동차과는 지난 26일 현대자동차(주) 전북지역본부로부터 교육용 실습차량(제네시스G80)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식은 산업체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자동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실제적인 차량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동차 구성 전부분의 교육에 활용할 최첨단의 완성차를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하였다. 이번 기증식에는 현대자동차(주) 박인환 전북지역본부장 이영성 전북지역본부 운영팀장 이정태 전주하이테크센터장 등 관계자와 전주비전대 우병훈 총장직무대행 조숙진 대외협력보좌관 자동차과 박경민, 김현식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과 학과장 김현식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기증을 통해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온 현대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게 되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정확히 습득하고 더욱 내실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주) 박인환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용 차량 기증을 통해 학생들이 자동차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울진 산불 피해지역 전기설비 복구지원 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직원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 국가재난관리 활동 공로 '인정'

전기안전공사, '방재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단체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0회 방재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매년 취약시기별 국가 중요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대응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 대상 전기설비 개선사업 등을 통해 전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울진·강릉 산불,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한남도' 등 대규모 재해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사 임직원 모두 국민 안전을 위해 달려온 값진 결과"라며 "국가재난 관리책임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넘어 안심사회를 구현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IX, 홍성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전달

본사·대전세종충남지역 직원, 1000만원 모아

I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렬)가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의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금(1,000만원)을 전달했다. IX공사 김경렬 사장 성기정 삼임감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진들은 이용록 홍성군수와 함께 지난 26일 홍성군 어사리 일대를 찾아 조림식 주택 입주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본사·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직원들이 모금한 것으로,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주택 소실 등에 따른 주거비·구호비 등에 쓰일 전망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갑작스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IX공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토대로 이재민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X공사 김경렬 사장은 "고통 받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면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부금 전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IX공사 김경렬 사장이 이용록 홍성군수에게 산불피해 지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산불로 홍성 등 3개 시군에서 63세대 1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홍성과 보령, 당진, 금산, 부여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욱기 기자

## 농협 진안군지부, 농협발전 상생협의회 개최

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는 최근 진안 관내 농·축협 계통 직원간 소통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업·농촌 만들기를 위한 2023년 제1차 진안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진안지역 농·축협

과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 위촉위원 15명은 계통조직간 이해증진, 사무소별 ONE-아이콘 사업추진, 고흥시향기부제 활성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아이디어 발굴 등 실천과제 도출 및 세부실천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